

장백산천지

제27호

2007년 4월 6일

금요일

과학은 왜 신의 존재를 검증 해내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금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한가 이룰테면 우리 주위의 의식주행, 천체물리학의 허브망원경으로부터 미시적세계중의 과거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보건의대 이러하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현대물리학의 미시적세계에 대한 연구에서 늘 아주 큰 에네지충격으로 한 립자를 분해하여 더욱 미소한 성분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쓰는 에너지 때문에 늘 립자의 한 조성부분은 립자전체의 중량(혹은 질량)보다 더 커야 한다. 그 결과 미시적인 연구에 신입하려면 기술적으로 장애가 될뿐만 아니라 연구의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즉 이러한 고에너지 《중포(重炮)》의 충격 하에 미시적인 립자는 그의 원래 소유했던 상태를 개변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이러한 과학기술방법은 인류로 하여금 미시적세계의 진면모를 인식할수 없게 한다. 비유해 말한다면 만약 전자를 비례에 따라 지구만큼 크게 확대한다면 그위에 사람, 동물, 화

초가 있을 수 있지만 인류의 기술은 영원히 그 경지까지 인식할 수 없다.

다시 거시적인 세계를 말해보자. 과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허브망원경으로 《매》라고 부르는 성운(星云)을 관측할때, 광파단과 홍외선파단으로 찍은 사진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수 있고 전자(前者)는 신성체(星体)가 강렬히 탄생하는 장관경치로서 《생명을 창조하는 기둥》이라고 부른다. 후자는 많지 않은 성체가 신속히 이루어 지는 것이다.

사실상 최근의 각종 사람을 놀래우는 천체 물리현상이 발견되었는데 마치 거대한 공간의 척도에 생명이 존재함을 예시해주는 것 같다. 만약 이렇다면 이러한 생명의 《눈》으로 지구를 본다면 우리가 전자를 보는 것보다 몇배나 더 작을 것이다. 다시말한다면 현대과학기술수준으로 미시적세계의 인류를 인식할수 없고 거시적세계의 인류도 인식할수 없다. 만약 거시적세계와 미시적 세계에 모두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 생명의 형식과 생활방식은 인류과학기술의 인식방법과 수준을 훨씬 초과해야 한다.

뉴턴의 신앙



뉴턴은 위대한 과학가 일뿐만아니라 또한 경건한 종교신도이다. 그가 발표한 과학저서는 그의 모든 저서의 1%를 점하며 80%의상은 모두 신학저서다

뉴턴은 《성경》에 기재된 고급생명을 무척 신앙했다. 그는 말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성경>에 기재된 것은 증거가 있다. 성경과 세속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너무 크다.》, 《<성경>에 있는 예언은 믿을만한 증거가 많다.》 뉴턴은 《성경》에 있는 비밀번호를 확신했으며 만유인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리하여 뉴턴은 헤브라이어를 꾸준히 배웠으며 비밀번호탐색에 절반의 인생을 보냈다. 립종시에도 뉴턴은 여전히 비밀번호탐색에 몰두했다. 그당시 컴퓨터보조계산이 없었기에 수학모식으로는 그 방대하고 복잡한 계산을 완성할수 없었다. 컴퓨터 시대인 오늘에야 비로서 비밀번호는 점차적으로 해석 되었고 비밀번호속에 들어있는 매개 예측 결과는 전세계 사람들을 놀래우고 있다.

묵천(墨泉)이 말라버렸다

산동제남 72 명천의 하나인 백맥(百脉)공원에 있는 묵천이 이미 말라버렸다. 1995년에 이 공원에다 룡천사(龍泉寺)를 세웠고 1996년 수건할때 룡천사안의 서쪽벽에 <精>, <气>, <神>, <真>, <善>, <忍> 6개 큰 글자를 새겨넣어 많은 유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2006년 5월에 강택민의 명령을 따라 이 6개 큰 글자를 붉은색 페인트로 지워버렸다. 이때로부터 샘물이 점점 줄어들어 묵천은 아예 말라버렸다.



중화민족은 자고로 천인합일 <天人合一>을 중이 여겼다. 인간에 나타난 신의 자취는 하늘의 뜻을 나타낸다. 묵천이 말라버린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중공의 말로를 련상시킨다.

관음보살을 놀리다가 벌을 받다

모 정부기관공무원 양씨는 다른 사람들이 불상을 사느것을 보고 자기도 밑에다 스프링을 단 관음보살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보살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너에게 절했으니 이번엔 나에게 절을 해라.》 그는 연필로 보살상밑에 달린 스프링을 쳤다. 얻어맞은 보살상이 흔들거리는 것이 마치 허리굽혀 절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보살상을 때린 것이 죄가 될줄은 누가 알았으랴 양씨는 즉시 허리가 아파 오래동안 일어설수 없었다. 이 일이 있은후 그는 겁이나 친구들에게 말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것이 아니다. 난 다시는 마구 놀지 않겠다.》



왼쪽사진은 미국 워싱턴에서 3월 24일 오후 국회 산집회를 열고 2천만 중국인의 퇴당을 성명였다.

넬불하면 리롭다



동위(東魏)시기(531-510), 한 정주사람인 손경덕은 불교를 신봉하고 관세음을 집에다 모셨다. 후에 나쁜 사람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모진 혹형과 핍박으로 죄를 승인하고 사형선고를 받았다.

꿈속에서 한 중이 그에게 <<관세음보살께서 목숨을 구해주십시오.>하고 소리내어 천번 읽으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자신감있게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이미 천번 읽고난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여전히 마음속으로 묵념했다. 사형할때 칼이 목을 베었지만 그리 아프지 않았고 피도 나지 않았으며 피부도 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칼이 세동강났다. 세번이나 칼을 바꾸어도 모두 그러했다. 사형수는 깜짝 놀라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사형감독은 사형을 정지하라고 명령하고 나서 이 상황을 조정에 보고했다. 당시 승상 고환은 서신을 띄워 손경덕의 사형죄를 면제하고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청구했다.

손경덕이 집으로 돌아온후 집에 모신 관세음보살에게 절을 할때 관세음보살상의 목에 세가닥 칼자국이 찍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관세음보살이 대신하여 고난을 받았음을 깨달은 손경덕은 감격의 눈물은 흘리며 관세음보살께 거듭 감사를 드렸다.

지금 법륜공대법제자들이 세인들에게 <<법륜대법은 좋다.>라고 소리내어 읽거나 묵념하면 생각밖에도 길상과 리로움을 얻게 된다.>>고 권고하고 있는 이 천리는 부처의 자비와 무한한 법력의 체현이다.

악보받은 길림성 성장 왕운곤

원 길림성 성장 왕운곤은 법륜공박해에 적극 참가하여 수많은 대법제자를 랍치하여 로교소와 감옥에 보냈다. 2006 년 하반기에 그는 직장암에 걸려 북경에 가서 수술하고나서 계속 치료받고 있다.

악보받은 연길시간수소 대대장 장석철, 부대대장 하학성

몇년래 장석철과 하학성은 수많은 법륜공학원들을 여러차례나 마음대로 옥하고 잔혹하게 때렸다. 2006 년말, 이 간수소지도부에서 집단적으로 뽀물을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장석철은 감옥에 들어갔고 기타 지도부성원들은 조동되었다.

연길시신흥파출소악인방



김호철	연길시신흥파출소	소장	13304489812
지일권	연길시신흥파출소	부소장	13304486845
최문호	연길시신흥파출소	부소장	13943399999
류홍리	연길시신흥파출소	부소장	13180738808
박용진	연길시신흥파출소	부소장	13514431262
김은걸	연길시신흥파출소	부소장	13304431262

전생을 기억하고있는 영국의 남자아이



6세라는 영국의 남자아이 카메룬은 어려서 말하기시작해서부터 파라도에 있을때의 동년생활을 이야기했으며 해변가에 자리잡은 흰색집을 그리기 좋아했다. 카메룬은 자기집에 위생실이 하나밖에 없지만 파라도에 있는 옛집은 위생실이 3개나 있었으며 침실창문으로 비행기가 해변가 모래밭에 착륙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카메룬의 간절한 요구에 따라, 2006 년 2 월에 온가족이 파라도로 갔다. 파라도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가 과연 해변가 모래밭에 착륙했다. 차를 타고 흰색집앞에 이르자 카메룬은 전세때 자신이 살던 집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내고 좋아 어쩔줄 몰라했다. 문어귀에까지 걸어갔을 때 카메룬은 갑자기 기쁨이 사라지고 조용해졌다. 원 집주인이 사망되었던 것이다. 열쇠를 보관하는 사람이 그들을 집 안으로 모셨다. 집안에는 과연 위생실이 3 개 있었고 그 침실창문으로 바다경치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번의 려행이 카메룬으로 하여금 심정을 유쾌하게 했으며 다시는 파라도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았다. 카메룬부모도 카메룬의 전세는 터무니없는 헛소리가 아니고 진정한 사실이라는 것을 완전히 긍정했다.

완남고진에 전해진 현대신화

2006 년 3 월 25 일 저녁에 비가 내렸다. 셋째는 1200 장 벽돌을 실은 네바퀴뜨락또르를 몰고 울통불퉁한 산길에 들어섰다. 길이 미끄러워 차를 뒤로 후진할때 점퍼옷이 피대에 감겨 땅에 떨어진 그는 피할사이도 없이 앞바퀴에 가슴이 깔린채 차발동이 꺼졌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사람들은 나무 몽둥이로 앞바퀴를 들고 칼로 피대에 감긴 옷을 찢어 흥미한 셋째를 꺼내여 집으로 들고왔다.

형님이 셋째동생의 내의를 바꾸어 입힐때 내의 호주머니에서 대법호신부 한장을 발견했다. 대법호신부에 <<법륜대법이 좋다.>를 외우면 재난이 사라진다.>>고 씌어져 있었다. 형님은 여러분과 함께 셋째동생을 마주보며 <<법륜대법이 좋다.>라고 외웠다. 차에 셋째동생을 싣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그는 <<아이구 아파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셋째가 흥미 상태에서 깨어난걸 보고 더 신심이 생겨 <<법륜대법이 좋다.>라고 거듭 읽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끝마쳤을때 셋째는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다. 의사는 셋째를 보고 <<관찰소, 집에 가서 며칠 휴식하면 되오.>>라고 말했다.

이 소식이 삽시간에 온마을에 퍼졌고 사람들마다 이 기적적인 <<현대신화>>를 찬송하고 있다.



알림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금년 4 월중순부터 연길시에서 새로 모집한 순찰감시원(40~50 세)들이 아침 근무반, 낮근무반으로 나누어 거리와 사회구역에 숨어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벽에 표어를 붙이는 법륜공학원들을 감시하고 랍치한다. 법륜공동수들은 발정념하여 사악을 청리하자!